

일본정부, 엔고·경제대책 검토

일본정부는 최근의 엔화 강세와 2/4분기 일본경제의 대폭적인 성장둔화에 따라 엔고·경제대책을 검토.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엔고·경제대책에 대해 자원 부족의 한계, 구체적 엔고대책 미흡, 9월 14일 민주당 총재선거 대비용 등의 비판적 시각이 대두

- 8월 16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최근의 엔화 강세와 2/4분기 일본경제의 대폭적인 성장둔화에 따라 국가전략장관·재무장관·경제산업장관 등 경제각료에 대해 엔고·경제대책 마련을 지시
 - 최근 달러약세 기조에 따라 엔화 강세 지속(8월 18일 현재 작년말 대비 엔화가치 8.1% 상승; 8월 11일 일시적으로 달러당 84.72엔을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)
 - 2/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정체, 수출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0.1% (전기대비) 성장하면서 전분기의 1.1%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
- 대책과 자원 방침
 - 경제대책: 12월 말 종료 예정인 에코포인트제도의 연장, 신규대출자의 취직지원,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이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
 - 자원: 국채의 추가발행은 피할 방침인 가운데, 2010년도 예산의 경제위기대응·지역활성화 예비비의 미사용분 9,200억 엔, 2009년도 결산 잉여금 8,000억 엔 등 약 1.7조 엔 정도로 상정

- 일본정부는 2010년 수정예산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함.
- 한편, 간 총리는 8월 넷째 주 중에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하여 엔고대책을 협의할 예정
-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엔고·경제대책에 대해 재원 부족의 한계, 구체적 엔고대책 논의의 미흡, 9월 14일 민주당 총재선거 대비용 등의 비판적 시각이 대두
- 경제대책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재정악화에 따른 국채의 추가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현행 에코포인트제도의 단순 연장 등으로는 재원이 부족
- 또한,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이 기대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일본은행의 상황인식은 신중론이 대세여서 추가완화책의 도입은 불투명함.
- 한편, 금번 엔고·경제대책은 9월 14일 민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그 골격이 발표될 방침인바, 총재선거 대비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실기에 대한 우려도 대두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0.8.17~18)

毎日新聞 및 読売新聞(2010.8.17)

Bloomberg